

## 자화상의 이면



Melissa Shook, 'March 26', 1973  
© Kristina Shook & The Estate of M. Melissa Shook  
Courtesy of MIYAKO YOSHINAGA, New York

## MELISSA SHOOK

미국의 사진작가 멜리사 숙(Melissa Shook)은 1970년대의 어느 날 카메라에 자신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당시 그녀는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고, 정신없는 일상에 갇히는 일이 많아졌으며,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거나 사진에 담을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셀프타이머가 장착되어 있는 롤라이 카메라와 자연광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이후 그녀는 한 동안 이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게 되었다. 지적인 판단보다는 무의식과 본

능이 시키는 대로 이어갔다는 이 작업에서 그는 주로 발랄하고, 가끔은 자유로운 나체의 모습이며, 시시때때로 딸아이도 프레임에 끼어든다. 멜리사 숙의 셀프 포트레이트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기록인 동시에 한 여성의 파편화된 정체성과 잃어버린 기억에 대한 투쟁이다. 시간이 흘러 멜리사 숙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사진에서 매력적인 몸매에 갇혀 있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삶의 무게를 걸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젊은 여성을 봅니다."

쓸쓸하면서도 흥만하고, 불안하면서도 자유로워 보이는 여성들의 자화상이 들려주는 삶에 대한 이야기.

EDITOR KIM JISEON



Carrie Mae Weems, 'Kitchen Table Series', 1990, printed 2003  
Courtesy of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Gift of the Collectors Committee, and Robert B. Menschel and the Vital Projects Fund

## CARRIE MAE WEEMS

흑인 여성의 권리와 자유의 영역을 확장하는 작업을 해온 아티스트 캐리 메이 웬스(Carrie Mae Weems)의 대표작은 '키친 테이블 시리즈'다. 식탁이 놓여 있는 풍경 안에서 딸, 남편, 친구 등과 접촉하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포착한 이 작품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타인과의 관계, 집 안의 권력과 노동 문제 등을 탁월하게 포착해낸 수작으로 현재까지 끊임없이 조명되고 있다. 캐리 메이 웬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키친 테이블 시리

즈'는 일부일처제의 어려움과 과장된 이상을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삶은 원체 지저분한 것이예요. 전 세계의 어디에나 있는 공동 공간에서 한 가족이 어떻게 유지되고 무너지는지 조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내 삶을 구했습니다." 한 여성이 보내는 일상의 고군분투가 생생하게 담긴 이 시리즈는 24점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사진에서 그녀는 결국 다시 혼자 되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카드 게임을 하고 있다.



Gillian Wearing, 'Self Portrait at 17 Years Old', 2003  
 © Gillian Wearing, Courtesy Maureen Paley, London, Tanya Bonakdar Gallery

## GILLIAN WEARING

질리언 웨어링(Gillian Wearing)은 우리가 단일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얼굴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자아를 꺼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구겐하임에서 대대적으로 열린 질리언 웨어링 회고전의 타이틀은 〈Wearing Mask〉였다. 그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마스크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자신 혹은 타인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사진이나 비디오 작업을 하며 또 다른 자아와 내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쓴 존재입니다. 밖으로 드러내 보이

는 모습과 내면 깊숙이 있는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자아가 만들어내는 불균형에 관심이 있습니다." 17세 소녀의 모습을 구현한 위 작품은 39세의 질리언 웨어링이 마스크를 쓰고 작업한 셀프 포트레이트다. 몸을 쪽 펴고 눈을 크게 뜨며 10대 때 셀피를 찍던 감각을 재현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90년대에 플래로이드로 찍은 셀피와 현시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셀피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동하지 않는 동안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영원한 공상 상태에 접어드는 것이죠."



Cindy Sherman, 'Untitled #652', 2003  
 © Cindy Sherman,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 CINDY SHERMAN

신디 셔먼(Cindy Sherman)은 늘 자신의 작품은 셀프 포트레이트가 아니라고 말해왔다. 배우가 맡은 배역을 연기하듯 작품 속에서 특정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뿐이며, 사실 자기 자신을 조금도 드러낸 적이 없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어떻게? 현재 하우저앤위스 뉴욕에서 전시 중인 신디 셔먼의 새로운 포트레이트 시리즈는 다소 기괴하다. 왜곡되고 일그러져 있는 여성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마치 세상이 바라는 대로 순순히 나이를 먹을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번 작업에서

신디 셔먼은 2010년에 촬영한 자신의 모습과 최근에 촬영한 모습을 조합해 불확실한 나이의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작업을 위해 늘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신디 셔먼은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카메라가 등장할 때마다 자신이 지닌 주름과 모공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한다. 이번 작업을 통해 신디 셔먼은 나이를 먹는 일이 여성에게 특히 더 어려운 이유를 탐구하며,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 채 서서히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포착한다. — A